



# SEONG-JIN CHO PIANO RECITAL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

OMEDIA

Hermès,  
cavalier jewellery

# SEONG-JIN CHO PIANO RECITAL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 STEPHAN RABIND

2023.7.4 TUE | 7.5 WED |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3년 7월 4일 (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조성진

**헨델**

독일 1685-1759

**건반 모음곡 제5번 E장조 HWV 430**

**구바이를리나**

러시아 1931-

**샤콘느**

**브람스**

독일 1833-1897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 24**

CREEDIA

인 터 미 션

**브람스**

독일 1833-1897

**피아노 소품 Op. 76 - 1, 2, 4, 5번**

**슈만**

독일 1810-1856

**교향적 연습곡 Op. 13**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온전히 나답게

## THE GENESIS G70 SHOOTING BRAKE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5T-GDI S/B 2WD 18인치(복합)10.9km/ℓ(도심)9.7km/ℓ, 고속도로:12.7km/ℓ | CO<sub>2</sub>배출량:15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69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2WD S/B 18인치(일트인젝):복합 10.8km/ℓ(도심)9.6km/ℓ, 고속도로: 12.6km/ℓ | CO<sub>2</sub>배출량:156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70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S/B 2WD 19인치(올시즌)복합10.7km/ℓ(도심)9.5km/ℓ, 고속도로:12.5km/ℓ | CO<sub>2</sub>배출량:157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71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S/B 2WD 19인치(일트인젝)복합10.3km/ℓ(도심)9.3km/ℓ, 고속도로:12.3km/ℓ | CO<sub>2</sub>배출량:161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70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S/B AWD 18인치(일트인젝)복합10.8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2.8km/ℓ | CO<sub>2</sub>배출량:168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78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S/B AWD 19인치(올시즌)복합9.9km/ℓ(도심)8.9km/ℓ, 고속도로:12.5km/ℓ | CO<sub>2</sub>배출량:170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794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S/B 19인치(일트인젝)복합9.7km/ℓ(도심)8.6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sub>2</sub>배출량:17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775kg | 자동8단(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제제,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급승법,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장/대리점의 카미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30PM, Tuesday, July 4, 2023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ong-Jin Cho, Pianist

**G.F. Handel**

Germany 1685-1759

**Suite No. 5 in E Major, HWV 430 for harpsichord**

**S. Gubaidulina**

Russia 1931-

**Chaconne**

**J. Brahms**

Germany 1833-1897

**Variations and Fugue in B flat Major on a Theme  
by Handel, Op. 24**

CREDIA

I N T E R M I S S I O N

**J. Brahms**

Germany 1833-1897

**Klavierstücke, Op. 76, Nos. 1, 2, 4, 5**

**R. Schumann**

Germany 1810-1856

**Symphonic Etudes, Op. 13**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PLUG INTO YOUR SENSES 당신과의 교감을 위해

THE GENESIS GV60

CREDIA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진배 및 등급 ▶ 4WD 20인치: 복합(4.3kWh/도심·4.6kWh/고속도로·4.0kWh/평균) | CO 배출량: 0g/km | 1회 충전 주행거리: 380km | 순전지 정격용량(리튬용량): 69.7(101.2kWh) | 공차중량: 2,100kg ▶ 4WD 19인치: 복합(4.5kWh/도심·4.8kWh/고속도로·4.1kWh/평균) | CO 배출량: 0g/km |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 축전지 정격용량(리튬용량): 69.7(101.2kWh) | 공차중량: 2,08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커미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헨델

### 건반 모음곡 제5번 E장조 HWV 430

동년배인 바흐와 비교했을 때 헨델의 건반음악 중 대표작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는 작품이 지닌 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페라, 오라토리오, 오르간 작품 등 다방면의 걸작을 소유하고 있는 헨델의 분방함이 원인이라고 하겠다. 솔직한 감동과 발산하는 감성이 공존하는 헨델의 건반 모음곡은 이탈리아와 영국을 거치며 몸에 익힌 국제적 감각과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있는 흥미만점의 걸작들이다. 그중 1720년에 출판된 하프시코드 모음집 1집에 수록돼 있는 모음곡 E장조는 마지막 악장인 변주곡의 인기와 함께 이 장르의 대표작이라고 하겠다. 이 곡에는 헨델이 하프시코드 작품을 다루는 전형적인 수법이 드러나는데, 소위 '독일식 모음곡'의 네 악장(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 중 사라방드와 지그가 생략돼 있다. 마지막 악장인 지그는 예의 변주곡이 대신하며, 청중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느린 템포의 사라방드를 뺀 것은 무대에서의 연주 효과를 의식한 작곡가의 결정이라 보여진다.

모두 네 악장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의 첫 곡은 두 성부가 대위법적으로 이어지는 프렐류드로, 전곡의 적절한 인트로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알르망드는 매우 선율적이며 온건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인상적인 꾸밈음들이 곁들여진 발랄한 쿠랑트를 지나, 모음곡은 하이라이트인 주제와 다섯 개의 변주로 들어선다. '조화로운 대장장이'라는 별명은 어린시절 대장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출판업자 윌리엄 린턴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망치질을 연상시키는 규칙적인 리듬과 딸림음인 B음이 처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주제를 지나 아르페지오적인 1변주와 양손의 역할이 바뀐 2변주, 분방한 셋잇단음표의 3변주와 왼손이 움직

임을 받는 4변주가 이어진다. 마지막 5변주는 32분음표 음계의 눈부신 움직임이 장식한다. 패시지를 쉴 새 없이 주고받는 양손의 움직임은 단순한 구조이지만 현란한 연주 효과를 만들어 낸다.

## 구바이돌리나 샤콘느

러시아의 대표적 여성 작곡가로서 올해 92세가 되는 소피아 구바이돌리나는 현재의 타타르 공화국 키스토폴에서 태어났다. 카잔 음악원을 거쳐 1954년부터 1963년까지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한 그녀는 쇼스타코비치를 포함한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들에게 일찍이 가능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러시아 정교의 독실한 신자인 구바이돌리나는 영적인 작곡가로 불리며, 인간의 영혼 속 깊은 울림을 음표로 옮기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러시아 음악가들이 지닌 선입관과 음향 감각을 뛰어넘는 비전통적 사운드를 합창음악을 포함한 성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 '오페르토리엄'(1980)과 함께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샤콘느는 학생 시절인 1962년 작곡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여러 경과구를 지닌 자유로운 변주곡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 마디짜리의 주제(화성적)는 이내 리듬과 음향을 바꾼 다섯 개의 변주로 진행되고, 토카타적인 움직임의 경과구는 점차 격렬해지며 절정을 이룬 후 중간부인 푸가로 돌입한다. 옥타브 진행으로 결말을 이룬 푸가가 끝난 후 다시 두 개의 변주가 나오고, F 샵 음을 중심으로 리듬이 잘게 쪼개지는 카덴차 풍의 패시지가 등장한다. 마지막 재현은 최초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비장한 느낌의 코다와 함께 전곡을 끝맺는다.



## 브람스

###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 24

즉흥에 가까운 기질로 자유로운 작풍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변주곡은 작곡가가 지닌 피와 땀의 최종적 결과물이다. 신중한 노력과 작곡가 브람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헨델의 모음곡 HWV 434 중 아리아를 주제로 인용한 변주곡 Op. 24는 28세의 젊은 브람스가 기울인 바로크 음악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노력의 산물이다. '베토벤 이후 나타난 피아노 변주곡의 최고봉'이라는 평가에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프렐류드와 푸가, 지그, 사라방드, 시칠리아노 등 바로크 풍의 습작들을 써내며 다각도의 연구를 거듭한 브람스의 총체적 고민의 결과는 25개의 변주와 푸가라는 대작으로 나타났다. 이 곡이 지닌 많은 장점 중 하나를 언급한다면 주제가 지닌 사뭇한 감성과 솔직한 건강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거기에 후기 낭만의 감수성을 멋지게 결합시켰다는 사실일 것이다. 바로크와 19세기 후반의 시대적 괴리감은 여기서 순수음악의 절대성을 통해 하나로 통일되며, 동시에 브람스의 음표들은 그 자체의 권위를 획득한다.

주제 - 모두 네 개의 악장으로 된 헨델의 모음곡 B 플랫 장조 중 아리아의 앞 부분을 사용했다. 원곡도 하나의 변주로 되어 있으며, 트릴 장식이 많은 멜로디는 명량하고 밝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1변주 - 씩씩한 기백이 느껴지는 첫 변주는 리듬 변화와 상관없이 주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2변주 - 유연한 흐름의 셋잇단음표가 두드러지며, 작곡가 특유의 반음계 진행이 나온다.

3변주 - 유희적인 당김음의 연속. 주제는 은근히 드러난다.

4변주 - 힘찬 옥타브 진행이 주된 아이디어로, 조금씩 드러나는 전조도 인상적이다.

5변주 - 같은 으뜸음의 단조로 진행된다. 멜로디 속 리듬은 철저히 브람스적이며, 왼손 반주 음형도 교묘하다.

6변주 - 역시 단조이며 양손이 옥타브로 연주되는 카논이다.

7변주 - 장조로 돌아와 사냥 나팔과 흡사한 호른을 연상시키는 리듬형으로 활기를 더한다.

8변주 - 리듬형은 지속되며 왼손에 나오는 스타카토 지시 역시 관악기의 날카로운 표현을 은유한다.

9변주 - 질질 고는 듯한 베이스 음과 엇갈려 나타나는 양손의 무거운 리듬 표현이 관현악적이다.

10변주 - 셋잇단음표가 둔중한 느낌으로 등장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스케르초처럼 들린다.

11변주 - 온건한 분위기의 선율은 낭만파적이나 분산화음적인 반주 음형은 바로크적이다.

12변주 - 앞의 분위기에서 이어지며, 분절적인 선율이 새의 노래와 전원풍의 정서를 전달한다.

13변주 - 단조로, 장송행진곡적인 기분이 지배적이다. 무겁고 투박하다.

14변주 - 명량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변주로, 작곡가가 좋아하는 6도 진행이 기교적으로 등장한다.

15변주 - 앞 곡에 이어지며, 이번에는 3도 진행을 포함한 중음 처리가 기교적 포인트다.

16변주 - 자유로운 카논이며, 가벼우면서도 분방한 도약음들의 처리가 주목된다.

17변주 - 8분음표 진행으로 앞의 변주보다 좀 더 속도를 높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8변주 - 드러나지는 않지만 당김음으로 진행하는 멜로디와 16분음표의 반주 모두 엇박으로 대위법을 표현한다.

19변주 - 8분의 12박자의 시칠리아노다. 한 마디에 두 개씩 붙어있는 장식음이 바로크적 정서를 담백하게 그려낸다.

20변주 - 부드럽지만 복잡한 반음계 진행을 양손 모두 연주한다. 어둡지만 세련된 정서는 브람스 특유의 것이다.

21번주 - 양손이 다른 리듬을 어지럽게 연주하지만 그 분위기는 달콤하다. 조성은 g단조다.

22번주 - '위제트 풍으로'라는 지시어가 붙어있으며, 보석상자에서 나오는 소리를 묘사했다. 은근한 색채 변화가 흥미롭다.

23번주 - 화려한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변주로, 8분음표의 무게감 있는 탄력이 느껴진다.

24번주 - 16분음표들이 양손에서 종횡무진하며 브람스적 인 비르투오시티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25번주 - 호쾌한 화음 진행이 넓은 도약을 이루며 건반 전체를 장악한다. 오케스트라의 총주를 연상케 하는 음향이다.

푸가 - 주제는 분명 헨델의 아이디어를 사용했지만 그 전개는 어디까지나 브람스의 독자적인 수법으로, 주제의 확대와 반진행 등의 요소에서 매우 자유롭고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기교적으로도 응집된 에너지가 요구되는 이 난곡은 코다에서 거대한 팡파레를 연상시키는 화성 진행의 절정을 선보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브람스

### 피아노 소품 Op. 76 - 1, 2, 4, 5번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니즘이 긴 호흡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선대의 작곡가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통해 작품 속 작은 '혁명'들을 섬없이 창조해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베토벤의 정신을 슈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물려받고자 했던 브람스의 피아노 앞에서의 실험은 20대 초반부터 부지런히 이어졌다. 소나타 세 곡을 통해 관현악적 아이디어를 실험했고, 네 곡의 발라드에서는 슈만적인 문학적 영감을 나타냈다. 장대한 변주곡들에서 성격 변주와 다성부(헨델 변주곡), 테크닉의 궁극적 경지(파가니니 변주곡)를 섭렵한 브람스가 어렵사리 찾아낸 방향은 내면의 목소리를 차분히 대

변하는 소품들이었다. 1878년 작곡된 8개의 소품 Op. 76은 은밀한 어조로 인생을 관조하는 브람스의 장년기를 여는 신호탄이다. 작품의 대부분은 휴양지 피르차하에서 만들어져 투명한 색채감과 편안함도 느껴진다. 전곡의 구성은 네 곡의 카프리치오와 네 곡의 인테르메초(간주곡)로 꾸며져 있다.

1곡 : 카프리치오. f 샵 단조. 끊임없이 흘러가는 16분음표의 움직임은 청춘의 방황을 연상케 한다.

2곡 : 카프리치오. b 단조. 명랑한 리듬 속에 펼쳐지는 멜랑콜리한 악상은 매우 유니크한 감상을 낳게 한다. 어딘가 자유로운 집시의 영혼도 느껴진다.

4곡 : 인테르메초. B 플랫 장조. 일견 평이한 진행이나 흔들리는 리듬형과 잦은 전조에서 불안감이 엿보인다. 멘델스존의 무언가적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5곡 : 카프리치오. c 샵 단조. 브람스 특유의 강렬한 음향과 복잡한 리듬을 표현해야 하는 비르투오시티도 느껴지며, 자주 등장하는 소스테누토가 오히려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 슈만

### 교향적 연습곡 Op. 13

1834년에 착수되어 1837년까지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대작 '교향적 연습곡'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슈만의 피아노곡 중 최고의 기교를 요구한다. 워낙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닌 슈만의 피아니즘 탓에 '일반적'이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작곡가 스스로 '교향악적'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만 보아도 이 곡의 스케일에 대한 초기의 구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곡에 대한 설명에 '변주'와 '연습곡'의 명칭이 병기되고 번호마저 혼동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판(1837)에서 '주제와 12개의 연습곡'으로 출판된 후 1852년 재판에서는 주제와 화성적 연관이 희박한 3번

과 9번 연습곡이 빠진 채 '변주곡 형식의 연습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1893년 브람스가 정리한 버전은 빠졌던 두 곡의 연습곡과 슈만 사후에 나온 5개의 변주곡까지 모두 합쳐 출판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초판의 형태인 주제와 열두 개의 연습곡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기에 연주자의 재량으로 유작 연습곡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오늘의 연주에서는 유작 중 4번주와 5번주가 추가된다.

주제 - 깊은 동경과 슬픔을 머금은 듯한 멜로디와 화성은 슈만과 친분이 있던 폰 프리켄 남작이 쓴 것이다. 슈만은 그의 딸인 에르네스티네에게 한때 애정을 품었다고 알려졌다. 폭넓은 아르페지오 설정은 분명 슈만의 솜씨다.

연습곡 1 (변주 1) - 작은 푸가 형태의 진행으로, 전반적으로 리드미컬한 동시에 예민한 루바토가 두드러진다.

연습곡 2 (변주 2) - 멜로디와 베이스 진행이 폭을 넓혀 교향악적인 음향을 암시하며 중간 성부에서의 화성 반주 역시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연습곡 3 - 4분의 2박자로, 넓은 도약을 빠르게 움직이는 아르페지오가 슈만적인 비르투오시티를 만들어낸다. 주제와는 화성적 연관이 별로 없다.

연습곡 4 (변주 3) - 힘찬 화음 진행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두 박자 늦게 시작해 따라가는 모양새로, 중간에 들어있는 스포르찬도가 엇갈리며 묘한 효과를 낸다.

연습곡 5 (변주 4) - 8분의 12박자로 부점이 섞인 경쾌한 스케르초 풍의 약상이 전개된다. 앞선 4번과 같이 카논풍의 진행이다.

연습곡 6 (변주 5) - 걱정적인 아지타토의 연습곡으로, 양손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32분음표들의 화려한 효과는 듣는 이들의 감성을 흔들리게 한다.

유작 변주 4 - 천천히 하행하는 오른손의 선율이 묵직한 저음역으로 설정된 왼손 반주와 장식 음형을 통해 비장미를 더한다.

연습곡 7 (변주 6) - 알레그로 몰토의 템포로, 당김음이 이어지는 힘찬 진행이다. E장조로 시작된 16분음표들은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연습곡 8 (변주 7) - 줄곧 하행하던 주제 선율을 뒤집어 상승하는 모양으로 바꿔 놓았다. 왼손으로 시작된 모티브를 오른손이 따라가는 형태이며, 다이내믹 변화가 섬세하다.

유작 변주 5 - D 플랫 장조로 되어 있는 이 느린 변주는 양손의 엇갈리는 리듬과 슈만 특유의 반음계적 화성 진행으로 달콤함과 신비스러움을 함께 제공한다.

연습곡 9 - '최대한 프레스토'라는 지시어에서 볼 수 있듯 숨막히는 16분음표 진행이 기교적 포인트다. 다양한 누앙스의 화음들을 균형있게 연주하는 솜씨가 요구된다.

연습곡 10 (변주 8) - 오른손이 실질적으로 주제를 부정 리듬으로 변형시켜 표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왼손의 움직임은 매우 동적이고 격렬하다. 브람스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다.

연습곡 11 (변주 9) - g 샵 단조의 조성으로, 매우 서정적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우울함의 정도는 매우 깊다. 내성의 다섯잇단음표는 작곡가 특유의 혼란한 감정을 대변한다.

연습곡 12 - 피날레 역시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작품이며, 자유로운 론도 형식의 대곡이다. 관현악적 스케일을 지닌 모티브는 등장부터 압도적인 찬란함을 지니고 있으며, 부점이 포함된 리듬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작곡가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나타낸다. 코드에서 들려오는 현란한 전조는 언제 들어도 탄성을 자아낸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 2023년 7월 5일 (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조성진

### 브람스

독일 1833-1897

### 피아노 소품 Op. 76 - 1, 2, 4, 5번

### 라벨

프랑스 1875-1937

거울  
CREDIA

---

인 터 미 션

### 슈만

독일 1810-1856

### 교향적 연습곡 Op. 13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7:30PM, Wednesday, July 5, 2023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ong-Jin Cho, Pianist

**J. Brahms**

**Klavierstücke, Op. 76, Nos. 1, 2, 4, 5**

Germany 1833-1897

**M. Ravel**

**Miroirs**

France 1875-1937

CREEDIA

— I N T E R M I S S I O N —

**R. Schumann**

**Symphonic Etudes, Op. 13**

Germany 1810-1856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브람스 피아노 소품 Op. 76 - 1, 2, 4, 5번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니즘이 긴 호흡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선대의 작곡가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통해 작품 속 작은 '혁명'들을 섬없이 창조해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베토벤의 정신을 슈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물려받고자 했던 브람스의 피아노 앞에서의 실험은 20대 초반부터 부지런히 이어졌다. 소나타 세 곡을 통해 관현악적 이디엄을 실험했고, 네 곡의 발라드에서는 슈만적인 문학적 영감을 나타냈다. 장대한 변주곡들에서 성격 변주와 다성부(헨델 변주곡), 테크닉의 궁극적 경지(파가니니 변주곡)를 섭렵한 브람스가 어렵사리 찾아낸 방향은 내면의 목소리를 차분히 대변하는 소품들이었다. 1878년 작곡된 8개의 소품 Op. 76은 은밀한 어조로 인생을 관조하는 브람스의 장년기를 여는 신호탄이다. 작품의 대부분은 휴양지 피르차하에서 만들어져 투명한 색채감과 편안함도 느껴진다. 전곡의 구성은 네 곡의 카프리치오와 네 곡의 인테르메초(간주곡)로 꾸며져 있다.

1곡 : 카프리치오. f 샵 단조. 끊임없이 흘러가는 16분음표의 움직임은 청춘의 방향을 연상케 한다.

2곡 : 카프리치오. b 단조. 명량한 리듬 속에 펼쳐지는 멜랑콜리한 악상은 매우 유니크한 감성을 날게 한다. 어딘가 자유로운 집시의 영혼도 느껴진다.

4곡 : 인테르메초. B 플랫 장조. 일견 평이한 진행이나 흔들리는 리듬형과 잦은 전조에서 불안감이 엿보인다. 멘델스존의 무언가적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5곡 : 카프리치오. c 샵 단조. 브람스 특유의 강렬한 음향과 복잡한 리듬을 표현해야 하는 비르투오시티도 느껴지며, 자주 등장하는 소스테누토가 오히려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 라벨 거울

타고난 천재성과 더불어 오기에 가까운 노력의 산물이라 할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곡이 근현대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창작물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그로테스크 속 달콤함, 고전적 단정함으로 포장된 비르투오시티와 교묘하게 계산된 다이내믹 등을 살펴보면 라벨의 음악은 매우 흥미로운 미로찾기와 흡사하다. 금방 출구를 찾을 수 있다면 게임의 생명도 짧은 법, 씨줄과 날줄이 정교하게 얽힌 이 작곡가의 텍스트는 '어디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는 프랑스인 특유의 자존감 그 자체다.

완전무결에 가까운 라벨의 피아노곡은 연주자 입장에서 해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의문투성이다. 작곡가 특유의 '비밀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수수께끼나 퍼즐을 좋아해서였을지, 혹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아서였을지 알기는 힘들지만, 라벨의 음향은 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그 출구를 달아버린 미로의 주인공 공처럼 느껴진다. 아울러 풀기 힘든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다니는 피아니스트의 모습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추리소설의 탐정과 닮아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완전범죄의 해결에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도전자들(연주자)의 모습 역시 라벨의 완벽함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지극한 세공의 결과물인 듯한 모음곡 '거울'은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제목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거울 앞에 선 모두는 좌우가 뒤바뀐 자신을 보며 이것이 과연 실체인지 왜곡된 자아인지 갈등한다. 고전파의 외피를 쓰고 있었던 '소나티네'의 후속작에서 라벨이 대상을 투영하고자 했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감한 생략과 의도적인 과장, 다소 인공적인 색채미 등은 작곡가가 선택한 소재들만큼이나 자유롭고 때론 엉뚱하다. 초연은 1906년 1월 6일, 명피아니스트 리카르도

비네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1곡 나방 - 어지러운 복합리듬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패시지들로 밝은 빛으로 모여드는 나방의 날갯짓을 묘사했다. 대상을 보는 이들은 아찔한 환각에 빠지고, '어둡고 표정적으로'라는 지시어가 붙은 중간부의 사색은 세련된 모습이라 오히려 생동맞다. 이윽고 다시 돌아온 나방의 비행은 피아노의 중저음을 오가며 듣는 이를 놀린다.

2곡 슬픈 새들 - 멀리서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는 슬픔을 머금고 있으며, 새의 모티브에 화답하는 저음역의 화음은 음울한 정서를 더한다. 중간부에서 나타나는 흔들리는 왼손 반주와 총동적인 오른손 음형은 새의 존재와 멀리 떨어져 이를 받아들이는 감상자의 물리적 거리감을 실감하게 만들며, 이는 묘하게 감상적이다.

3곡 대양 위의 조각배 - 단순하게 이어지는 아르페지오와 흔들리는 오른손의 음형 진행, 어딘지 공허함이 느껴지는 화성들의 이어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망망대해 위의 작은 배라는 비현실적인 영상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정중동으로 변하는 아르페지오와 트레몰로의 흐름은 바다 위의 공기와 온도, 태양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교한 비르투오시티가 요구된다.

4곡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 스페인적 정서와 무곡에 대한 라벨의 세련된 감각이 적절하게 결합된 명곡이다. 셋잇단음표의 모양이나 실질적으로는 꾸밈음으로 느껴지는 모티브가 전곡을 지배하며, 기타의 트레몰로를 연상시키는 재빠른 연타 음형과 이중의 글리산도가 기교적 표현의 하이라이트다. '이야기하듯이 표정적으로'라는 지시어의 중간부는 즉흥적이고 총동적인 감정의 발산을 내보여 인상적이다.

5곡 골짜기의 종 - 단순한 3부 형식으로, 화성 진행과 모티브의 등장 등 모든 요소가 머뭇거리는 듯 보이거나 드러나는 뉘앙스의 강도는 짙다. 중간부의 선율은 매우 길고 감동적으로, 교묘하게 섞여가는 완전4도 음형의 반주가 세련미를 전달한다. 재현되는 세 번째 부분이 지극히 짧게 생략돼 오히려 긴 여운을 느끼게 한다.

## 슈만

### 교향적 연습곡 Op. 13

1834년에 착수되어 1837년까지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대작 '교향적 연습곡'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슈만의 피아노곡 중 최고의 기교를 요구한다. 워낙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닌 슈만의 피아니즘 탓에 '일반적'이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작곡가 스스로 '교향악적'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만 보아도 이 곡의 스케일에 대한 초기의 구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곡에 대한 설명에 '변주'와 '연습곡'의 명칭이 병기되고 번호마저 혼동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판(1837)에서 '주제와 12개의 연습곡'으로 출판된 후 1852년 재판에서는 주제와 화성적 연관이 희박한 3번과 9번 연습곡이 빠진 채 '변주곡 형식의 연습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1893년 브람스가 정리한 버전은 빠졌던 두 곡의 연습곡과 슈만 사후에 나온 5개의 변주곡까지 모두 합쳐 출판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초판의 형태인 주제와 열두 개의 연습곡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기에 연주자의 재량으로 유작 연습곡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오늘의 연주에서는 유작 중 4변주와 5변주가 추가된다.

주제 - 깊은 동경과 슬픔을 머금은 듯한 멜로디와 화성은 슈만과 친분이 있던 폰 프리켄 남작이 쓴 것이다. 슈만은 그의 딸인 에르네스티네에게 한때 애정을 품었다고 알려졌다. 폭넓은 아르페지오 설정은 분명 슈만의 솜씨다.

연습곡 1 (변주 1) - 작은 푸가 형태의 진행으로, 전반적으로 리드미컬한 동시에 예민한 루바토가 두드러진다.

연습곡 2 (변주 2) - 멜로디와 베이스 진행이 폭을 넓혀 교향악적인 음향을 암시하며 중간 성부에서의 화성 반주 역시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연습곡 3 - 4분의 2박자로, 넓은 도약을 빠르게 움직이는 아르페지오가 슈만적인 비르투오시티를 만들어낸다. 주제와는 화성적 연관이 별로 없다.

연습곡 4 (변주 3) - 힘찬 화음 진행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두 박자 늦게 시작해 따라가는 모양새로, 중간에 들어있는 스포르찬도가 엇갈리며 묘한 효과를 낸다.

연습곡 5 (변주 4) - 8분의 12박자로 부점이 섞인 경쾌한 스케르초 풍의 악상이 전개된다. 앞선 4번과 같이 카논풍의 진행이다.

연습곡 6 (변주 5) - 격정적인 아지타토의 연습곡으로, 양손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32분음표들의 화려한 효과는 듣는 이들의 감성을 흔들리게 한다.

유작 변주 4 - 천천히 하행하는 오른손의 선율이 묵직한 저음역으로 설정된 왼손 반주와 장식 음형을 통해 비장미를 더한다.

연습곡 7 (변주 6) - 알레그로 몰토의 템포로, 당김음이 이어지는 힘찬 진행이다. E장조로 시작된 16분음표들은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연습곡 8 (변주 7) - 줄곧 하행하던 주제 선율을 뒤집어 상승하는 모양으로 바꿔 놓았다. 왼손으로 시작된 모티브를 오른손이 따라가는 형태이며, 다이내믹 변화가 섬세하다.

유작 변주 5 - D 플랫 장조로 되어 있는 이 느린 변주는 양손의 엇갈리는 리듬과 슈만 특유의 반음계적 화성 진행으로 달콤함과 신비스러움을 함께 제공한다.

연습곡 9 - '최대한 프레스토'라는 지시어에서 볼 수 있듯 숨막히는 16분음표 진행이 기교적 포인트다. 다양한 누앙스의 화음들을 균형있게 연주하는 솜씨가 요구된다.

연습곡 10 (변주 8) - 오른손이 실질적으로 주제를 부점 리듬으로 변형시켜 표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왼손의 움직임은 매우 동적이고 격렬하다. 브람스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다.

연습곡 11 (변주 9) - g 샵 단조의 조성으로, 매우 서정적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우울함의 정도는 매우 깊다. 내성의 다섯잇단음표는 작곡가 특유의 혼란한 감정을 대변한다.

연습곡 12 - 피날레 역시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작품이며, 자유로운 론도 형식의 대곡이다. 관현악적 스케일을 지닌 모티브는 등장부터 압도적인 찬란함을 지니고 있으며, 부점이 포함된 리듬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작곡가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나타낸다. 코다에서 들려오는 현란한 전조는 연제 들어도 탄성을 자아낸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OPERA  
NATIONAL  
DE PARIS

DEVIALET

## 파리 오페라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 가르니에와  
하이테크 오디오 브랜드 드비알레가 탄생시킨

### 궁극의 오페라 에디션



독점수입원

O D E

문의 02-512-4091 인스타그램 @ode.seoul

드비알레 오페라 에디션은 공식 수입사 ODE의 전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REDIA



CREATED BY

© STEPHAN ABOLD

## 피아니스트 조성진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조성진은 빠르게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으며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지적이면서도 시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감미롭고, 기교가 넘치면서도 색채감이 가득한 그의 연주에는 귀족적인 고고함과 순수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의 타고난 균형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성진은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조성진은 지난 2016년 1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가장 각광받는 연주자인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으며, 정명훈, 구스타보 두다멜, 야닉 네제-세갱, 안드리스 넬슨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사이먼 래틀 경, 상투 마티아스 로우발리, 예사-페카 살로넨과 같은 유명 지휘자들과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조성진의 2022/23 시즌 하이라이트로는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제임스 개피건 지휘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안드리스 넬슨스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으며, 세몬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과는 티에리 에스케쉬의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이먼 래틀 경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정명훈 지휘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해외 투어에 함께 하며,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는 2023년 봄에 독일 투어를 진행한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성진은 세계 곳곳의 명망 높은 공연장들을 누비고 있다. 뉴욕 카네기 홀,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허바우, 베를린 필하모닉, 빈 콘체르트하우스, 뮌헨 프린츠레겐텐극장, 산토리 홀,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홀,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공연장에서 연주하였으며, 2022/23 시즌에는 카네기 홀, 보스턴 셸러브리티 시리즈, 월트 디즈니 홀,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슈투

트가르트 리더할레, 함부르크 라이스할레, 베를린 필하모닉, 빈 무지크페라인 등에서 재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조성진은 이번 시즌 런던 바비컨 센터에서 데뷔한다.

조성진의 도이치 그라모폰 첫 음반은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의 <4개의 발라드>를 녹음한 것으로 2016년 11월에 발매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에 드뷔시 독주곡을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2018년에는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협주곡 20번 라단조>가 포함된 모차르트 작품집을 녹음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을 주제로 한 음반 <방랑자>가 발매되었는데 이 앨범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외에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1번,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담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첫 음반을 함께했던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스케르초 전곡을 녹음한 음반이 되었으며, 2023년 2월에는 신보 <헨델 프로젝트>가 발매되었다. 그의 모든 음반은 전 세계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 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졌다. 2009년에는 일본 하마마츠에서 열린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최연소로 우승했으며 201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3위에 입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와 함께 공부하였다. 조성진은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다.

## Seong-Jin Cho, Pianist

With an innate musicality and overwhelming talent, Seong-Jin Cho has established himself worldwide as one of the leading pianists of his generation and most distinctive artists on the current music scene. His thoughtful and poetic, assertive and tender, virtuosic and colourful playing can combine panache with purity and is driven by an impressive natural sense of balanc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2015 when he won First Prize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arsaw, and his career has rapidly ascended since. In January 2016, he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An artist high in demand, Cho works with the world's most prestigious orchestras including Berliner Philharmoniker, Wiener Philharmoniker, London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de Paris, New York Philharmonic and The Philadelphia Orchestra. Conductors he regularly collaborates with include Myung-Whun Chung, Gustavo Dudamel, Yannick Nézet-Séguin, Andris Nelsons, Gianandrea Noseda, Sir Simon Rattle, Santtu-Matias Rouvali and Esa-Pekka Salonen.

Highlights of Seong-Jin Cho's 2022/23 season include performances of the Brahms piano concerti at Festspielhaus Baden-Baden with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 Nézet-Séguin. He notably returns to the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to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with Andris Nelsons and performs the world premiere of Thierry Escaich's new piano concerto with the Czech Philharmonic and Semyon Bychkov. A highly sought-after touring soloist, Cho embarks on several international tours, including those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Sir Simon Rattle to Japan and Korea, with the Dresden Staatskapelle and Myung-Whun Chung in Dresden and in Korea. He also performs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touring throughout Germany in Spring 2023.

An active recitalist very much in demand, Seong-Jin Cho appear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including the main stage of Carnegie Hall,

Concertgebouw Amsterdam, Berliner Philharmonie, Konzerthaus Vienna, Prinzregententheater München, Suntory Hall Tokyo, Walt Disney Hall Los Angeles, Festival International de piano de la Roque d'Anthéron, and Verbier Festival. During the coming season he is engaged to perform solo recitals at the likes of Carnegie Hall, Boston Celebrity Series, Walt Disney Hall, Alte Oper Frankfurt, Liederhalle Stuttgart, at Laeiszhalle Hamburg, Berliner Philharmonie, Musikverein Wien and he debuts in recital at the Barbican London. Cho also returns, three times this season, to Japan where he first appears in recital performances in Nagoya, Tokyo and Yokosuka in August 2022.

Seong-Jin Cho's latest recording is his solo album entitled *The Handel Project*, released in February 2023, and in August 2021, he released Chopin's Piano Concerto No. 2 and Scherzi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for Deutsche Grammophon. He had previously recorded his first album with the same orchestra and conductor featuring Chopin's Piano Concerto No. 1 as well as the Four Ballades. His solo album titled *The Wanderer* was released in May 2020 and features Schubert's "Wanderer" Fantasy, Berg's Piano Sonata op. 1 and Liszt's Piano Sonata in B minor. A solo Debussy recital was also released in November 2017, followed by a Mozart album with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 Nézet-Séguin in 2018. All albums have been released on the Yellow Label and have garnered impressive critical acclaim worldwide.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the age of six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ged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From 2012-2015 he studied with Michel Béroff at th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de Paris. Seong-Jin Cho is now based in Berlin.



### Chopin | 2016 Piano Concerto No.1 / Ballades

쇼팽 콩쿠르 피날레를 장식하고 조성진에게 우승을 안겨주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정식 스튜디오 녹음이 담긴 앨범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와 함께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외에도 발라드 전곡, 녹턴 20번 수록



### Debussy | 2017

드뷔시 사후 100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념한 앨범

어릴 적부터 좋아한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의 음악 수록 / '달빛', '영상 1, 2집'과 '어린이 차지'



### Mozart | 2018 Piano Concerto No.20 K.466 / Sonatas K.281 & 332

야닉 네제 세겜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수록



### Mozart | 2019 Rondo in A Minor, K. 511 / e-single

'론도 K. 511'는 단조와 장조를 넘나드는,  
모차르트 피아노 솔로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



### The Wanderer | 2020

처음으로 한 작곡가가 아닌 슈베르트-베르크-리스트를 묶어  
조성진의 깊어진 음악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 베르크 소나타 Op. 1 / 리스트 소나타 S. 178 수록



### Chopin | 2021 Piano Concerto No. 2 / Scherzi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함께 더욱 대담하고 정열적인 '4개의 스케르초'를 담아  
쇼팽의 또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음반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 스케르초 전곡 / 에튀드 '혁명'과 녹턴 등 수록



### The Handel Project | 2023

고전을 주로 다루었던 전작들과 달리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헨델의  
작품들을 선보인 조성진의 신보



# 조성진 헨델 프로젝트

## CREDIA



조성진 여섯번째  
도이치 그라모폰 정규 앨범

시대를 거슬러 고전에서 바로크로 돌아오다 -  
마음에서부터 그대로 울려오는 음악

헨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앨범으로  
'하프시코드 모음곡' 중 가장 아끼는 작품들과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수록  
빌헬름 쾰프 편곡 버전의 미뉴에트  
G단조로 완결된다



UNIVERSAL MUSIC CLASSICS



universalmusickoreaclassics



universalmusicclassickorea





**코로나 기간에 조성진 씨의 연주는 다른 아티스트에 비해 그렇게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다보니 집에서만 지내서 불안했어요. 생애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 헨델 녹음을 생각해 봤어요. 악보를 많이 사서 이것저것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특히 헨델이 와닿았어요. 2020년이었으니 내후년쯤 녹음해볼까 했습니다.

**레코딩 데뷔 8년 차로 6번째 정규 앨범인데, 그동안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다 바로크는 처음입니다. 바흐가 아니라 헨델을 선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흐를 아직 녹음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바흐가 좀더 지적이고 복잡하다면 헨델 건반은 더 멜로디 한 면이 있어요. 바로크 음악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저에게 헨델이 조금 더 쉽게 느껴졌는데, 연주하면서 헨델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했어요.

어릴 때 예술의전당 영재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선생님님이 바흐 평균율 전곡이랑 베토벤 소나타 전곡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20대 후반이 되니까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바흐뿐만 아니라 바로크 음악은 전반적으로 배우는 데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헨델을 준비할 때 태어나서 가장 많은 연습을 했어요. 특히 2월에 투어가 취소돼서 한 달간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7-8시간씩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앨범명이 [헨델 프로젝트]입니다. 30대가 되면 브람스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음반이 그 연결선상에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2018년에 30대쯤 브람스를 막연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선불리 말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브람스 연주를 할 기회가 있긴 했는데... 앞으로는 몇 살 때 뭘 한다는 등 미래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려고요.



**하프시코드와 현대 피아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력했던 포인트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바로크 음악은 대단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출신 하프시코드 연주자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어요. 작년 1월쯤이었을 거예요. 성악가 임선혜 누나와 많이 작업하신 분이라 누나에게 부탁했어요. 그때 하프시코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프시코드는 현대 피아노와 달라요.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고, 피아노는 현을 치기 때문에 건반이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완전히 다른 악기라고 생각해요.

현대 피아노 연주는 장점이 많아요. 아무래도 표현이 용이하달까요. 하지만 헨델과 바흐가 현대 피아노 연주 버전을 좋아하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도 바로크 음악이 해석의 폭이 넓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바로크를 낭만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렌 굴드처럼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해석했어요.

**요새 클래식 음악을 듣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성진 씨는 음악을 어떻게 듣나요?**

음반을 많이 사고, 듣는 편이에요.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전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요. 스포티파이는 계정도 없고, 유튜브는 연주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환경이 바뀌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LP에서 CD로 넘어갔던 시대에도 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전문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음악과 커리어는 분리해야 한다고 봐요. 좋은 음악이 좋은 커리어를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요. 커리어로 말하자면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사람과 연주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명세를 떠나서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나요?**

행복을 매일매일 생각해요. 지인에게도 물어보고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투어 마치고 집에 와서 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서 집에 와서 새로운 악보 사서 배우는 게 제일 행복해요.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쇼팽 콩쿠르 우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1년 전부터 느낀 건데, 매년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의 연주 비결을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클래식이 유럽 음악이기 때문에 동양인 연주자를 떠올리면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국악을 하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처럼요.

개인적으로는 유럽 음악가보다 뛰어난 한국 음악가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왜 이렇게 콩쿠르를 많이 나가는지를 묻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콩쿠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가장 쉬운 등용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답변을 기사로 내주지는 않더라고요.

#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 오케스트라

스승과 제자, 지휘봉과 첼로 활보 마주하다

## HAN-NA CHANG & MISCHA MAISKY

WITH DITTO ORCHESTRA

2023.9.23 SAT | 9.24 SUN |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티켓

예매

CREEDIA MUSIC & ARTISTS

R석 15만원 | S석 12만원 | A석 8만원 | B석 4만원

Club BALCONY 리켓링크 인터파크 티켓 예술의전당

9.23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Op. 67

9.24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 드보르작 교향곡 9번 e단조 Op. 95

© DE WITTEN

© MICHAEL BRONSTEIN / AP

# 정 트리오

# CHUNG TRIO CONCERT

MYUNG WHUN CHUNG

KYUNG WHA CHUNG

JIAN WANG



2023.9.5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 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